섬김의 교회는 ....

8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교회와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쉬지 않고 나아갑니다.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하나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 치유, 회복과 나눔의 공동체입니다.

예배 및 모임안내

주일예배	Lord's Day Worship / Sunday 12:30 am
주일학교	Sunday School / Sunday 11:30 am (뉴 라이프 교회)
주일 성경공부	Sunday Bible Study / Sunday 11:00 am
금요찬양예배	Friday Service / Friday 8:00 pm
새벽 경건회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 to 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주중성경공부	Bible Studies / Tuesday 8:00 pm (zoom)
일대일 제자훈련	Discipleship Classes / Monday 10:00 am

교회위치 Lo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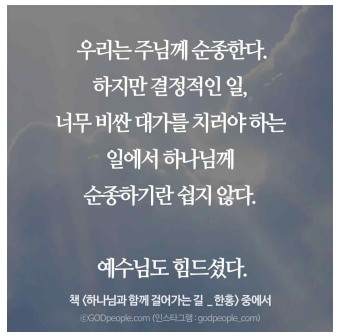
800 E. Palatine Rd., Palatine, IL 60074
847) 691-7846
www.churchofservant.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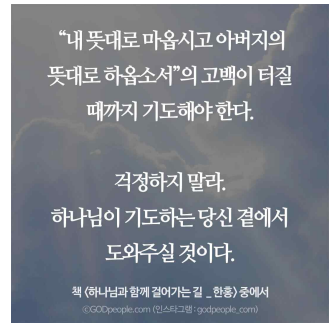
상반기 결산의 달
소금과 빛 된 주간

건강한 믿음 성장

"네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에
네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요한 3서 1:2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환영과 축복	사역과 소식 (교회/교우)
하나님 앞으로	찬양과 경배 /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김훈태 집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민수기 20:22-29 (구약 239쪽) "차고 넘쳐 나누는 멋진 인생"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송 / 찬송 595장 "나 맡은 본분은" 결단의 기도
헌신과 열매 (봉헌/나눔)	봉헌 최선윤 / 최내권 집사 ★봉헌찬송 / 213장, 4절 "나의 생명 드리니"
세상과 삶으로	★찬양 찬송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축복기도 / 김성배 목사

★ 표는 모두 일어섭니다.
예배시간 10분 전 휴대전화를 끄고, 묵상으로 예배를 준비합시다.

금요찬양예배

찬양과 기도 / 샬롬 장로교회와 함께
성경: 사도행전 6:1-6
묵상 제목: 사역의 본질과 분담

아내와의 언쟁은 항상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 시작했다.

한번은 거실에서 아내와 언쟁이 벌어졌다. 항상 그렇듯, 별일도 아니었다. 이번에는 쓰레기봉투가 화근이었다.

퇴근하고 집에 도착하니 아내보다 먼저, 묶여 있는 쓰레기봉투가 나를 맞았다. 아내는 집안일을 도와 달라고 했고, 나는 가장의 자존심을 내세워 집안일이 싫다고 했다.

언쟁 도중에 화가 나서 현관문을 '쾅' 닫고는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아무도 없었다. 거기서 5분도 지나지 않아 내 감정과 마음은 바뀌었다.

문을 괜히 세게 닫고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은 일에 크게 반응하다니, 내 모습이 부끄러워 숨고 싶었다. 후회막심이었다.

아내가 옳고 내가 틀렸음이 보였다. 미안했다. 홀로 있기를 멈추고 다시 집으로 뛰어 '올라갔다'. 사과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아내에게 화냈던 이유부터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말하다보니 마음이 다시 꼬였다. 이전보다 더 큰 말싸움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주차장으로 또 '내려갔다'. 아무도 없었고, 마음이 후회로 뒤바뀐 것은 홀로 지낸 지 5분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집에서만 이런 게 아니다. 나는 자주 외로움의 자리로 '내려간다'. 인생사 다른 일들도, 교회 사역에 대처하는 모습도 비슷하다.

별일 아닌 걸로 문제가 커지고, 고통 가운데 나는 홀로 있게 된다. 잠시만 혼자 시간을 보내면 생각은 곧 바뀌고, 문제에 대한 대처도 달라진다. 성장한다. 패턴이다.

홀로 남아 하나님을 독대하는 일은 사람을 바꾼다.

E. M. 바운즈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 "교회는 더 나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즉 기도의 사람, 기도에 능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에도 사람에게 부탁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성장을 위함이다.

새로운 결단

영적 멘토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훈련자시니 그분과 긴밀히 만나는 사람은 성장한다.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도구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인물로 성장한다.

사람은 주로 어떤 자원이나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만났을 때 혼자만의 자리로 떨어지게 된다. 고통이 사람을 혼자되게 만든다.

일반적으로, 홀로 남는다는 것은 부정적이다. 그 자리에서 사람은 연약함을 느낀다. 건강이나 그동안의 이력과 같은 자기 보호막이 고통의 문제로 다 사라지게 되면 사람은 불안해진다.

무기력감, 외로움, 좌절감, 우울함, 분노 같은 온갖 부정적 감정에 휩싸이게 되기도 한다. 하지만 홀로됨에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좋은 점도 있다.

사람은 막상 홀로되면 그제야 쉴 수 있다. 비록 고통 가운데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제야 차분해진다. 생각을 정리할 짬을 얻는다. 우선순위를 재점검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점은,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홀로됨의 유익이다.

하나님과 단 둘의 시간을 보낸 성경 인물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다.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은 좋지 않다(창 2:18). 하지만 무언가와 함께 있느라 홀로 완전하신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은 더욱 나쁘다. 사람은 다 죄인이다(롬 3:10). 죄인들의 공통점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대체할 의지 대상을 찾는 것이다.

이때 선택하는 것은 주로 자기 자신이다. 좀 더 펼쳐서 말하자면, 자신의 힘과 경험, 자기 성취와 그에 따른 인정, 자신을 돕는 사람들이나 시스템, 어떤 철학과 신념, 그밖에 자신이 선호하는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따른다.

다행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이다(신 31:6, 히 13:5).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랑의 아버지시다(신 4:31).

성경의 원리대로라면, 누군가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게 될 때 사랑의 주님은 그를 홀로되게 하심으로써 그를 되찾아 오실 것이다. 기존에 의지하던 온갖 것들로부터 고립시키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환경으로 안내해주실 것이다.

<나홀로 예배> 송준기

섬김의 교회를 방문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후, 점심 친교를 통해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소식 6월 상반기 결산 / 순종과 충성의 열매

1. **상반기의 달** 하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도록 힘 씁시다.
2. **소금과 빛 된 주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세상의 소금과 빛 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3. **찬양팀 친교** 구 민(은강 집사) 가정에서 가집니다.
4. **Oikos 모임** 찬양팀 모임과 함께 가집니다.
5. **방학** 자녀들이 방학 중 자기발전을 하며, 신앙이 성장하도록, 특히, 7월 단기선교(7/29-8/3)를 위해 기도합시다.
6. **연합사역** 다음 **주일**(23) **주일예배는 주 찬양 교회**에서 **연합**으로 드립니다. (**오전 11:00**, 502 W. Euclid Ave., Arlington Heights) **금요찬양예배**(21)는 **샬롬 장로교회**와 연합으로 드립니다.
7. **구제 사역** 구제를 위한 옷/생활용품 기부를 6월에 실시합니다.
8. **중보기도** 매일 낮 12시, 저녁 9시 다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9. **나눔과 교제** 주일 점심 친교 후, 다 함께 교제합니다. (3:00-4:00pm)
10. **문서전도** 매주 목요일판 "교차로"에 섬김의 교회가 참여하는 **복음메시지**가 실리고 있습니다.

교우소식

퇴원과 회복: 김희란 사모(김훈태 집사의 모친)
출타: Jacob Kim 전도사(한국방문)

생일축하

오승국(15) 이정연(24)

6월 사역

금요 찬양팀 친교/Oikos 모임(16) 소금/빛 된 주간(16-22)
연합예배(23, 주찬양 교회) 선교주간(23-29) 선교주일/제직회(30)

한 주간의 말씀

누가복음 19:17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말씀개요

민수기 20:22-29 / 차고 넘쳐 나누는 인생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깨닫고 기쁨으로 순종하자.
마침과 새로운 출발: 출애굽 세대(아론)로부터 다음 세대(일리에셀)로 직분과 사명의 이임
아론은 호르 산에 죽고, 이스라엘은 아론의 영적 발자취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고, 주께 "잘했다 충성되다"는 칭찬을 듣고, 면류관을 얻자.

말씀요약

최근 세간의 화두가 Well Being과 함께 Well Dying이다. 인생을 멋있게 살고, 죽음을 가치와 존엄으로 맞자는 소망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론의 인생이 그랬다.

출애굽 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가 시작된다. 지긋지긋한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평정심을 잃고, 반석에게 명령하지 않고, 지팡이를 2번 내려치고, 생수가 솟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지 않았다. 40년간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섬겼지만, 아론과 모세는 가나안을 마주보며, 죽음을 맞게 된다. 충성했다면 그에 준한 보상과 대가를 받아야지 않는가?

아론은 말 잘하는 재능을 인정받았고, 존귀한 사명을 받고, 대제사장의 막중한 직분에 끝까지 충성했다. 모세, 아론과 엘르아살이 호르산에 올랐지만, 모세와 엘르아살만 내려왔다. 아론은 하나님이 정하신 후계자에게 자신의 모든 사명과 직분을 멋지게 위임했다. 그리고 죽음을 맞았다. 온갖 불평과 원망을 다 쏟아놓던 이스라엘은 아론의 죽음을 슬퍼하며 30일 동안 애곡했다. 멋진 인생과 죽음이지 않는가.

우리는 노후나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안락과 안정도 중요하지만, 맡은 사명을 끝까지 잘 수행하기 위해 노후를 잘 준비하자. 노후 준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충성하기 위해 재정적인 준비를 갖추고, 건강도 잘 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괜찮은 인생'을 살았기에 모든 것을 가볍게 내려놓으며, "내 구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고 고백하도록 준비하며 살자.

기도제목

1. **성장과 열매**: 2024년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 공동체의 사역들이 열매를 맺도록
2. **영성**: 삶 속에서 말씀묵상과 기도로 영성 훈련하도록
3. **가정의 기도 제목**: 사업의 어려움, 파병된 자녀의 안전, 새로운 준비를 하는 자녀, 건강의 회복
4. **가족**: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5. **교육사역**: 자녀들의 영적성장과 Youth Ministry를 위해
6. **Oikos 사역**: 소그룹 사역으로 회복과 전도의 은혜를 누리도록
7. **선교지와 선교사**: 네팔/뉴욕(박은주 선교사)
8. **이웃 교회들과 연합사역**: 샬롬교회/주찬양교회/찬송이야기 사역

선교 소식 (네팔/뉴욕, 박은주 선교사)

1. 뉴욕 문화/봉사/기도 센터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속히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2.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 예수님의 복음만을 전하는 참된 사역들과 사역자들이 되도록
3. 가족들의 구원, 영적으로 성장하며, 육적으로 지치지 않고, 맡은 사역에 충성하며, 분별력을 가진 삶을 살도록

예배 섬김이

주일 기도 인도	6월	16일 김훈태 집사
		23일 구 민 집사
	7월	7일 박진성 집사
	7월	14일 구은강 집사
주일 봉헌 인도	6월	16일 최선윤/김훈태 집사
		23일 김훈태/최선윤 집사
	7월	7일 오정은/최내권 집사
	7월	14일 구 민/최선윤 집사
주일 예배 안내	6월	최내권 집사

섬기는 사역자들

지도목회자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교육전도사 (Youth Minister) Jacob Kim 전도사
찬양인도자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